



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. 그러나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

은 모두 장사하기 좋은 해외
것이라고 한다. 이 계획의
그 때까지 1천여명의 담당
해외 지사 지점에 발령내고
칸이 유럽을 제패했듯이 유

졸업호 신문 1면의 국가의
사고시 합격기사에서 의예과
를 의학과로, 39명중 32명 합
격을 1백43명중 1백34명으로,
80%를 93.7%로 고칩니다.

〈김용운 기자〉

△로고사용료기금(96.8~97.1)2백8만4천27원

은 모두 장사하기 좋은 해외로 옮길 것이라고 한다. 이 계획의 일환으로 그 때까지 1천여명의 담당 이사를 해외 지사 지점에 발령내고 징기스칸이 유럽을 제패했듯이 유럽과 미

민간 부문의 이같은 움직임에 맞서 관리들도 죽기 살기로 산업공동화를 주장하며 일정규모 이상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허용하지 않

기업의 크기를 불문하고 원료 구매는 A국에서 하고, 생산은 임금이 싼 B국에서, 판매는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

상상도 하지 못한 세계화라는 강풍이 캠퍼스를 비껴갈리는 만무하다. 이 시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캠퍼스의 대학생들은 무엇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. **〈蝸堂〉**

주최 :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식당
후원 : 대학주보사

